

직할교구신도회 5대 회장단 임명

이금석 회장 연임… 기금 전달도

조계종 직할교구 제5대 회장단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직할교구 제5대 회장단을 임명했다. 제5대 신도회장으로는 이금석 현 회장이 연임됐다.

이날 직할교구 신도회는 회당단 명의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1583만 9000원을 전달했다. 직할교구신도회는 일일찻집과 스포츠대회 등을 통해 기금 모연을 진행해 왔다.

이날 임명식에서 원행 스님은 "종단 발전과 화합을 위해 신도들의 힘이 필요하다. 신도회가 신도와 스님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사부대중 화합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금석 직할교구 신도회장은 "한국불교와 종단을 위한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 발원

연탄불공회, 44세대 유류비 지원

대강백 무비 스님의 자비나눔 발원으로 시작된 연탄불공회가 저소득층에 유류지원금 1300만원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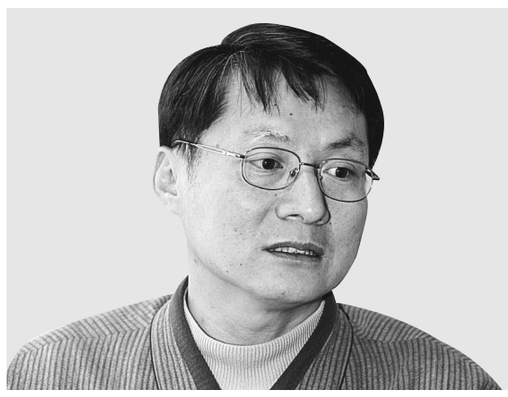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1월 12일 부산 금정구자원봉사센터에서 난방비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연탄불공회는 무비 스님이 2017년 저소득 난방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조계종부산연합회에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무비 스님과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연탄불공회 전용 후원계좌를 개설했고 신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산 중구, 강서, 기장, 해운대구, 금정구 등 5개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 받은 44세대에 유류비 29만원을 전달한다.

회장 심산 스님은 "연탄도 뜻 깊지만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름보일러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전달한다"며 "무비 스님의 뜻을 이어 앞으로도 자비 나눔 원력에 동참하고 소외 계층에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금정구자원봉사센터장은 "평소 자타불이(自他不二)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남을 위한 행복이 곧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며 "난방비 후원을 위해 함께 해준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수학술등재지 학회 위상 정립"

Interview

임승택 제11대 불교학연구회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우수학술등재지 연구회가 유일
연구회 인지도 높일 활동 전개
젊은 학자 학술활동 지원 노력
"사회 담론 논의의 장 만들 것"

"제11대 불교학연구회장으로 선출해준 학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연구회 회장의 자리는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불교학연구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된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선출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그는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감사로는 김원명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와 문을식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임승택 회장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인도불교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졸업, 초기불교 수행론으로 200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학문과 수행을 겸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요가연수원서 10여 년 동안 하타요가를 수련 지도했고, 미얀마 참매센터 · 쉐우민센터 등서 여러 차례 수행 안거했다. 저서와 역서로는 〈붓다와 명상〉 〈바가바드기타 강독〉 〈빠띠삼비다막가 역주〉 〈초기불교 94가지 주제로 풀다〉 〈네띠빠까라나 상 · 하〉 등이 있다.

임승택 회장은 향후 불교학연구회를 '우수학술등재지 학회'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불교, 기독교 중 우수학술등재지 보유 학회는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연구〉가 유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불교학연구회가 우수학술등재지 보유 학회임을 알려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지원활동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교학연구회의 강점인 활발한 토론문화 발전과 젊은 학자들의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하겠다는 게 임승택 회장의 목표다.

"사실 제 자신이 불교학연구회의 활동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젊은 학자들도 불교학연구회를 통해 자신의 학문 영역을 넓혀갔으면 합니다. 연구회에서도 젊은 학자들의 학회 활동 지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불교학연구회는 연2회 학술대회와 논문발표회, 워크숍을 각각 진행한다. 임승택 회장은 사회 담론과 연계 · 논의할 수 주제들을 학술행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등을 통해 시대적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불교학계의 학술 주제는 주로 문헌학적 관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불교학의 논의는 사회적 담론을 이끌 수 있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학연구회에게 개최하는 학술 행사의 주제도 사회 담론을 함께 고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합니다."

어르신 행복 불교복지관서 '듬뿍'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경로의날 작품발표회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시설장 대원)이 제11회 복운경로의 날 기념행사와 문화교육 프로그램 작품발표회를 개최했다.

11월 9일 복지관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은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스님들과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문화공연에 이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무대공연, 작품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인 배영애 강사의 사물놀이로 막을 연 기념식은 지난 1년간 복지관을 위해 애써온 지역주민 · 강사 · 직원에 대한 시상식,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와 (주)프로그렉서비스 후원금 전달식,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우 스님의 격려사 및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하관수 강사와 배영애 강사가 선운사복지재단 표창을 수상했으며, 김현오 고창푸드마켓 직원이 고창군수상, 정향숙 강사가 고창군의장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이 개최한 '제11회 복운경로의 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어 가수 조기량의 축하공연과 한국무용, 이지댄스, 가요난타, 태극권, 라인댄스 등 복지관 이용자들의 다채로운 무대공연, 작품전시 등이 펼쳐져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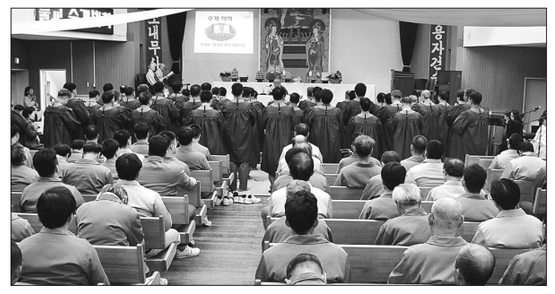
복지관 주차장에서는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네일아트, 이미용서비스, 발마사지, 의료부스, 다문화지원센터 세계문화 역사알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대원 스님은 "고창군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지역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애써주신 지역주민 및 이용고객,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서울구치소 수계법회 봉행

의왕 청계사, 54명에게 계 수여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11월 9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계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법회서는 성행 스님을 전계사로 54명이 계를 받았다. 성행 스님은 "하루에 선을 행하면 복이 반드시 온다"며 "선을 행하려 노력하고 악을 멀리하면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법문했다. 노덕현 기자

응공조계종 창종 7주년 법회

종정 법운 스님 "세계평화 간절히 염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11월 11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창종 7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종정 법운 스님, 원로의원 홍원 · 수덕 · 법등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7년 전 인연으로 함께한 사부대중은 세계평화와 불교진흥을 간절히 염원하며 머문 바 없는 한 마음으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수행 정진해 복덕을 지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소중한 인연찾기 배워요"

금선사서 미혼남녀 대상 '만남 템플스테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1월 10일부터 1박2일 동안 서울 금선사(주지 법안)서 '만남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20 · 30대 미혼남녀들의 건전한 만남을 독려했다. 이 기간 참가자 20명은 이명길 사이다연애상담소 대표의 '행복한 인연 만들기' 특강과 △숲속 명상 △새벽예불 등 다양한 사찰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김지원 기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